

사성제 四聖諦

작성 : 2022년 8월 05일 금요일

수정 : 2022년 8월 11일 목요일

들어가며

- 목차
- 서문
- 들어가며 붓다의 수행 여정과 깨달음

1장. 괴로움과 행복

- 1. 세속의 괴로움과 행복
 - 1) 세속의 괴로움과 행복은 느낌이다
 - 2) 괴로운 느낌은 괴로움이다
 - 3) 행복한 느낌은 행복이다
- 2. 붓다의 괴로움과 행복
 - 1) 붓다의 괴로움과 행복은 느낌이 아니라 특성이다
 - 2) 괴로운 느낌은 괴로움이다
 - 3) 행복한 느낌도 괴로움이다
 - 4) 느낌은 괴로움이고, 느낌의 소멸이 행복이다
- 3.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의 전환
 - 1) 그릇된 견해와 바른 견해
 - 2)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이 사성제이다

2장. 법이란 무엇인가?

- 1. 법이란 무엇인가?
 - 1) 현상과 개념은 함께한다
 - 2) 법은 붓다의 견해로 현상을 본 것이다
 - 3) 존재의 실상은 물질과 정신의 법이다
 - 4) 법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구조로 정리한 것이 사성제이다
- 2. 법에 대한 바른 이해
 - 1) 법을 통해 법을 볼 수 있다
 - 2) 법은 현상과 개념을 함께 나타낸다
 - 3) 법은 현상보다 통찰이 중요하다
 - 4) 개념에만 빠지지 말고 현상을 관찰해야 한다
 - 5)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
- 3. 법을 알고 보면 괴로움이 소멸한다
 - 1) 붓다의 견해는 사성제의 견해이다
 - 2) 사성제의 견해를 통해 법을 본다
 - 3) 법을 보면 사성제를 알 수 있다
 - 4) 법을 알고 보면 괴로움이 소멸한다

3장. 연기

- 1. 연기
 - 1) 연기
 - 2) 연기된 법
 - 3) 십이연기
- 2. 십이연기의 해설
 - 1) 늙음·죽음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2) 태어남은 존재를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3) 존재는 취착을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4) 취착은 갈애를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5) 갈애는 느낌을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6) 느낌은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7) 접촉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8) 여섯 감각 장소는 정신·물질을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9) 정신·물질은 의식을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10) 의식은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11) 의도적 행위는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난다
 - 12) 십이연기의 일어남과 소멸
- 3. 십이연기의 의미
 - 1) 십이연기의 구조
 - 2) 존재란 무엇인가?
 - 3) 존재는 어떻게 태어났으며, 존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?
- 4. 연기는 중간의 가르침이다
 - 1) 상견과 단견
 - 2) 연기는 중간의 가르침이다
 - 3) 연기와 사성제

4장. 사성제

- 1. 불교는 사성제이다
 - 1)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
 - 2) 사성제는 진리의 가르침이다
- 2. 고성제: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
 - 1) 존재의 실상은 다섯 무더기이다
 - 2) 다섯 무더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이다
 - 3) 고성제: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
 - 4)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할 진리이다
- 3. 집성제: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
 - 1)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
 - 2) 집성제: 갈애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
 - 3)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
 - 4) 집성제는 버려야 할 진리이다
- 4. 멸성제: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
 - 1) 멸성제: 갈애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
 - 2) 해로운 법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
 - 3) 열반과 단견의 차이
 - 4) 아라한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?
 - 5) 멸성제는 실현해야 할 진리이다
- 5. 도성제: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의 진리
 - 1) 도성제: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
 - ① 바른 견해
 - ② 바른 사유
 - ③ 바른 말
 - ④ 바른 행위
 - ⑤ 바른 생계
 - ⑥ 바른 정진
 - ⑦ 바른 기억
 - ⑧ 바른 삼매
 - 2) 유익한 법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
 - 3) 도성제는 계발해야 할 진리이다

5장. 사성제에 대한 기억 확립

- 1. 불교의 수행은 중도 수행이다
 - 1) 팔정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바른 견해이다
 - 2) 팔정도는 계를 기반으로 정과 해를 닦는 수행이다
 - 3) 팔정도는 지관쌍수이다
 - 4) 팔정도는 중도이다
 - 5) 불교의 수행은 중도 수행이다
- 2. 중도 수행을 통해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된다
 - 1) 중도 수행을 통해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된다
 - 2) 사성제에 대한 기억 확립의 과정
 - 3) 사성제에 대한 기억 확립이 깨달음이다
 - 4) 아라한의 마음

부록

- 나가며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
- 참고문헌